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 매개효과 -

오윤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종교적, 실존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청소년 42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통계 패키지 이용하였고, 주요 통계기법으로는 빈도분석, t-검증, F-검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Sobel Test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전체, 심리적 안녕감, 자기통제력 모두 $p<.01$ 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종교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4, p<.001$). 셋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2, p<.001$). 넷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42, p<.001$). 다섯째, 기독교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영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F=75.012, p<.001$).

주제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통제력

• 논문 투고일: 2018년 9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18년 10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1일

*한국성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I. 여는 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해오면서 카카오톡(Kakao talk), 페이스북(Facebook)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모바일 메신저가 소통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폰 이용의 대중화는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Holfeld, 2014). 특히 청소년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부작용 중 하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다양화·홍포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발표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률은 16.2%, 피해경험률은 16.8%로 나타났다. 청소년정책연구원(2014)에서 발간한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에 의하면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약 28%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7)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가운데, ‘사이버 명예 훼손(50.6%)’, ‘스토킹(50.0%)’, ‘신상 정보 유출(62.6%)’, ‘따돌림(55.9%)’ 등에서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이 가해자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는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의 주변인 또는 아는 사람 중심으로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괴롭힘을 당한 후에 50.0%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심리를 느끼고, 41.1%는 상대방에게 복수 욕구를 느끼며, 23.5%는 자살욕구, 23.5%는 사람 교제가 어려워지고, 26.5%는 공부/등교가 싫어졌다고 했다.

이와 같이 ‘사이버 폭력’은 새로운 폭력의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다른 국가들에서도 온라인 공간이나 SNS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

되었다. 이에 사이버불링 피해를 견디다 못해서 끝내 자살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게 되면서 “cyberbullicide,” 즉, “사이버불링 자살(Cyberbullied +Suicide)”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조운오, 2015).

사이버불링은 성장세대인 청소년의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불링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삶의 위기와 문제 상황을 성경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 유지와 자기조절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대안과 관련연구 또한 절실하다고 하겠다.

유선미(2017)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이버불링 관련 연구는 2012년에 1편(2.5%)에서 2013년에 10편(25.0%), 2014년에 6편(15.0%), 2015년에 6편(15%), 2016년에 17편(42.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된 관련 연구는 아직 한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현재까지 기독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본 연구는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 또한 교회 내외에서 청소년지도와 효율적인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종교적, 실존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목회 및 교회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교육과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리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불링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해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그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이버환경의 순기능적 활용과 하나님의 선한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영적·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사이버불링의 이해와 선행연구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이 결합되어 생겨난 신조어로 인터넷 공간이나 온라인 내 블로그, 인스턴트 메시지, 혹은 마이스페이스(My Space)나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교묘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K. Conn, 2014). 사이버불링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법률 제7119호, 2004.1.29., 제정. 법률 제15044호, 2017.11.28., 일부개정. 시행 2017.11.28.)」 제2조(정의) 3-1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따라서 ‘사이버 괴롭힘’(송지연, 2016), ‘사이버 비행(정혜원, 정동우, 2012), ‘사이버 폭력’(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등과 같은 유사용어도 함께 쓰이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번역된 용어가 사이버불링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10년 이후부터 학계에서는 원어 그

대로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으로 사용하고 있다(신나민, 안화실, 2013; 한희정, 전해진, 2014),

사이버불링의 특징 중 하나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폭력과는 다르게 온라인 공간에서 24시간 끊임없이 피해자를 통제할 수 있고, 학교 밖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괴롭힐 수 있다는 점이다(Willard, 2007). 그리고 사이버불링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오세연, 곽영길, 2013), 오프라인의 공간보다 과격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음으로 피해자들의 정서적·심리적·신체적 고통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신소라, 2015; 박대식, 손은정, 2016; Agatston, Kowealsk, & Limber, 2012; Agatston, Kowealski, & Limber, 2012; Barlett, 2015).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에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그 폐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Mian, 2014). 금품갈취나 신체적 폭력과 같은 전형적인 학교폭력은 경제적 배상이나 치료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 손상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문이나 합성사진, 욕설, 댓글 유포 등은 원래의 처음 정보를 삭제해도 사이버 공간의 전파성으로 인해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게 되는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Hinduja & Patchin, 2010).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회적 불안, 학교생활부적응, 자살생각 및 시도, 약물남용, 우울, 외로움, 신체화증상 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vonen & Gross, 2008; Gradinger, Strohmeier, & Spiel, 2011). 그리고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포, 슬픔, 불안 등의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우울증상으로 이어진다. 나타나게 된다(오은정, 2010; Kowalski, Morgan, & Limber, 2012).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기

존의 전통적인 집단따돌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울의 관계보다 더 심각한 우울을 유발하기도 한다(Wang, Nansel, & Iannotti, 2011). 특히 사이버불링의 여러 부정적인 영향 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복수심과 폭력성의 증가이다. 즉, 사이버불링을 당한 피해 청소년은 복수심을 느끼고, 사이버불링의 가해 원인이 되는 상황을 반사적으로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 사이버불링의 경험이 사이버불링을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를 입증하고 있다(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Ybarra & Mitchell, 2007; 김경은, 윤희미 2012).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의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와 영적·심리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적 안녕감의 이해와 선행연구

1948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영적 안녕감을 공식적인 건강의 개념 안에 포함시켰다. 이후 영적인 안녕(spiritual well-being)이 강조된 시점은 1998년 WHO 제네바 총회에서 비롯되었다(김형화, 2013). 그리고 꾸준히 최근까지 영적 안녕감에 대해서 신학자부터 일반학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Burkhardt(1989: 69-77)에 따르면 “영적 안녕감은 하나님, 자신, 이웃,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영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영적인 건강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Chapman(1986: 38-41)은 영적 안녕감에 대해 “인간이 신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평안해지며,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사랑과 기쁨, 평화를 누림과 동시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최대한의 잠재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Soeken과 Carson(1987)의 정의를 재정립한 오복자와 강경아(2001: 967-977)는 “영적안녕이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하였다.

영적 안녕감 척도를 개발한 Paloutzian과 Ellison(1982)은 영적안녕의 구조를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는데, 수직적 차원은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영적안녕으로 ‘종교적 안녕’이라 하였으며, 수평적 차원은 인간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관계되는 것으로 ‘실존적 안녕’이라고 하였다(신건호, 2008).

기독교인의 영적 안녕감에 대해서 박미하(2014: 191)는 “하나님과 자신, 타인, 외부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건강상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 안녕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내적인 평안함이며, 실존적 안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데서 얻는 만족감이다.”라고 했다. 종교적 안녕감은 예배생활, 기도생활, 성경묵상 등을 통해서 취할 수 있고, 실존적 안녕감은 대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용서 등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를 토대로 실현해 갈 수 있게 된다.

영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적 안녕감은 대부분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oberg, 1974). 오복자와 강경아(2000)는 안녕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감사와 만족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영적 안녕감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원천이 된다(고경숙, 2013; 박지아, 유성경 2003).

한편 후기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영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이지안(2009)은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은 영성지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유만상(2012)은 독서활동

이 영성수준을 높이는데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김경애(2013)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의 이해와 선행연구

심리적 안녕이라는 용어는 Jahoda(1959)가 ‘긍정적 정신건강(positive mental health)’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McDowell과 Newell(1990)에 따르면 심리적 안녕감은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 혹은 환경에 대한 개인적 반응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한 전체적 감정 또는 행복감정이다. 따라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조절능력이 있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려고 하며 삶의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였다(Masse et al., 1998).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낮은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저해요소가 되고 나아가 정신적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김혜원, 2015). 이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하였다(황혜원, 2011).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청소년 발달과 성장, 적응에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사소통의 방식은 정적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백윤미, 유미숙, 2006). 특히 부모 자녀 간 긍정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자녀 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현주, 2010).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못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불링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 노출되

는 경향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김미정, 정규석, 2014).

4) 자기통제력의 이해와 선행연구

자신을 감독하고 지배하는 강한 법칙으로 일컬어지는 자기통제력(self-control)에 대해서 Karoly(1999: 264-291)는 “자신을 스스로 상황의 요구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미래의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시적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였고, Kopp(1982)는 자기통제력을 자신이 원하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김민정, 2007). 이경림(2000)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인지 과정을 통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수행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 행동은 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통제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약물사용과 같은 즉각적이고 쉬운 쾌락을 추구하며 사이버 중독에 빠지기 쉽게 된다고 하였다(고기숙, 이면재, 김영은, 2012). 김교정과 서상현(2006)은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았으며 동시에 학교, 가정 또는 친구들에게서 받는 압박감을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중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하창순 외, 2006). 그리고 김선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은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은 물론이고 심리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김태용, 2014).

2.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경기·서울에 거주하며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중·고등학생 65명을 대상으로 2018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 경기, 충청, 전남지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450부였으나 내용이 미비한 3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20명의 설문지만 통계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비는 남학생 170명(40.48%) 여학생 250명(59.52%)이었고, 고등학생은 260명(61.90%) 중학생 160명(38.10%)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척도는 Hinduja와 Patchin(2009)이 개발하고, 심진숙(2009)이 번안한 9문항과 전진현과 이성식(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4문항을 기초로 김은경(2012)이 개발한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김은경(2012)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검증된 피해경험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2) 영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적 안녕감 척도는 Paloutzian와 Ellison(1982)에 의해서 개발된 영적 안녕감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를 이진화(2012)가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에 맞게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영적 안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하위요인으로 종교적

영적 안녕감 12문항과 실존적 영적 안녕감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Likert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진화(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종교적 안녕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 실존적 안녕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으며, 영적 안녕감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3)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Ryff(1989)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조운주(2006)가 번안하고 김수지(2009)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총 1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 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 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자영과 최웅용(201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4) 자기통제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통제력 척도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척도와 김현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남현미(1999) 및 정수연(2014)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자기통제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약간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의 5점 Likert 척도이다. 남현미(1999)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다.

〈표 1〉 측정도구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이버불링	1, 2, 3, 4, 5, 6, 7, 8, 9, 10, 11	11	.92
종교적 안녕감	1*, 2*, 3, 4, 5*, 6*, 7, 8	8	.84
실존적 안녕감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88
영적 안녕감 전체		20	.91
심리적 안녕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8	.89
자기통제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0	.86

*역산채점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 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치,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값과 각 측정 변수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자기통제력, 영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¹⁾를 실행하였다.

1) Sobel Test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 검정하는 것이다(Sobel, 1982).

3. 연구의 결과분석과 해석

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영적·심리적 안녕감, 자기통제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종속변인인 영적 안녕감(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매개변인인 자기통제력에 대한 기술 통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은 5점 척도로 $M=4.12(SD \pm .48)$ 이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5점 척도로 $M=3.82(SD \pm 3.21)$ 이며, 영적 안녕감 전체는 6점 척도로 $M=3.30(SD \pm .52)$ 이다.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영적 안녕감 전체 가운데 실존적 안녕감 $M=3.64(SD \pm .53)$ 이 종교적 안녕감 $M=3.12(SD \pm .61)$ 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통제력 또한 5점 척도로 $M=3.15(SD \pm .48)$ 로 모두 정상범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의 기술 통계분석 (N=420)

variable	M	SD	min value	max value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3.82	3.21	1.00	9.00
종교적 안녕감	3.12	.61	1.00	6.00
실존적 안녕감	3.64	.53	2.00	5.51
영적 안녕감 전체	3.30	.52	1.50	5.76
심리적 안녕감	4.12	.51	1.82	4.53
자기통제력	3.15	.48	1.80	4.36

2) 변수 간의 상관관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 전체, 심리적 안녕감, 자기통제력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N=420)

variable	1	2	3	4	5	6
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1					
2. 종교적 안녕감	-.237**	1				
3. 실존적 안녕감	-.231**	.470**	1			
4. 영적 안녕감 전체	-.210**	.750***	.781***	1		
5. 심리적 안녕감	-.282**	.572**	.671**	.652**	1	
6. 자기통제력	-.153**	.403**	.353**	.513**	.443**	1

p<.01 *p<.001

먼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는 심리적 안녕감($r=-.282$)으로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도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심리적 안녕감($r=-.282$)을 비롯해서 영적 안녕감 전체($r=-.210$), 종교적 안녕감($r=-.237$), 실존적 안녕감($r=-.231$), 자기통제력($r=-.153$)을 낮아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적 안녕감 전체는 실존적 안녕감($r=.781$), 종교적 안녕감($r=.750$), 심리적 안녕감($r=.652$), 자기통제력($r=.513$)순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종교적 안녕감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심리적 안녕감($r=.572$), 실존적 안녕감($r=.470$), 자기통제력($r=.403$)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실존적 안녕은 심리적 안녕감($r=.671$)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통제력 또한 심리적 안녕감($r=.513$)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종교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깊은 정적(+) 상관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 매개효과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종교적, 실존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의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매개변인인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수준이 종속변인(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해 종속변인(종교적 안녕감, 실존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영향에 대한 설명력과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 하였다.

<표 4>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 매개효과(N=420)

Stage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b)	t	R ₂	F
		B	std.error				
1	사이버불링 → 자기통제력(a)	-.021	.004	-.164	-4.562***	.095	15.324***
2	사이버불링 → 종교적 안녕감(c)	-.041	.006	-.224	-5.892***	.086	13.123***
3	사이버불링 → 종교적 안녕감(c')	-.018	.005	-.141	-4.234***	.341	59.124***
	자기통제력 → 종교적 안녕감(b)	.648	.046	.531	14.134***		
1	사이버불링 → 자기통제력(a)	-.021	.004	-.164	-4.562***	.095	15.324***
2	사이버불링 → 실존적 안녕감(e)	-.051	.009	-.172	-5.623***	.091	15.621***
3	사이버불링 → 실존적 안녕감(e')	-.023	.006	-.106	-3.580***	.451	91.492***
	자기통제력 → 실존적 안녕감(d)	1.146	.056	.631	20.453***		
1	사이버불링 → 자기통제력(a)	-.021	.004	-.164	-4.562***	.095	15.324***
2	사이버불링 → 심리적 안녕감(g)	-.029	.005	-.242	-6.721***	.132	21.782***
3	사이버불링 → 심리적 안녕감(g')	-.017	.004	-.150	-5.113***	.386	75.012***
	자기통제력 → 심리적 안녕감(f)	.623	.027	.623	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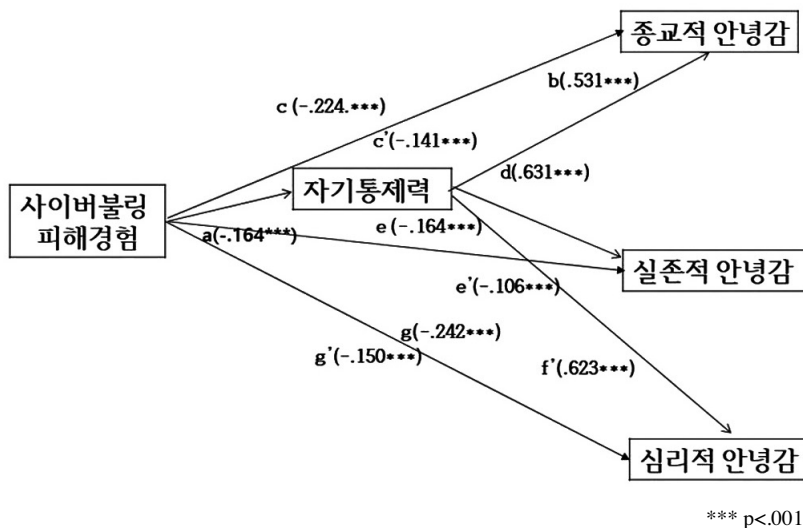
*** p<.001

첫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종교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자기통제력에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 = -.164, p < .001$), 2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종교적 안녕감에 영향을 보였고 ($\beta = -.224, p < .001$), 3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beta = -.141, p < .001$)과 자기통제력 ($\beta = .531, p < .001$)은 종교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종교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설명력은 8.6%로 나타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3단계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모형과 표준회귀계수는 <그림 1>과 같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Z = -1.896, p < .001$ 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실존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자기통제력에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beta = -.164, p < .001$), 2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을 보였고 ($\beta = -.172, p < .001$), 3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beta = -.106, p < .001$)과 자기통제력 ($\beta = .631, p < .001$)은 실존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설명력은 9.1%로 나타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3단계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모형과 표준회귀계수는 <그림 1>과 같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Z = -1.942, p < .001$ 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

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자기통제력에 매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beta = -.164, p < .001$), 2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보였고($\beta = -.242, p < .001$), 3단계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beta = -.150, p < .001$)과 자기통제력($\beta = .623, p < .001$)은 심리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설명력은 13%로 나타났고,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3단계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모형과 표준회귀계수는 <그림 1>과 같고,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Z = -1.935, p < .001$ 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영적·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매개효과(N=420)

〈표 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유의성 검증

independent variable	Path Model			Sobel test Z	P	
	parameter variable		dependent variable			
사이버불링	⇒	자기통제력	⇒	종교적 안녕감	-1.896	.000
사이버불링	⇒	자기통제력	⇒	실존적 안녕감	-1.942	.000
사이버불링	⇒	자기통제력	⇒	심리적 안녕감	-1.935	.000

Ⅲ. 닫는 글

1. 연구의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통제력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목회 및 교회교육 현장에서 기독교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상담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 420명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5점 척도에서 $M=3.82(SD \pm 3.21)$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미정과 정규석(2014)의 $M=3.81(SD \pm 4.05)$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국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의 피해경험은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서 발표한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률이 16.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에 따른 대책과 회복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수로 심리적 안녕감($r=-.282$)은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심리, 정서에 관련된 연구들(오은정, 2010; Beran & Li, 2007; Juvonen & Gross, 2008; Gradinger, Strohmeier & Spiel, 2011; Kowalski, Morgan, & Limber, 2012)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영적 안녕감 전체($r=-.210$)와 자기통제력($r=-.153$)에서도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기독교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Ybarra & Mitchell, 2007; 김경은, 윤희미 2012)의 결과와 같음을 의미한다. 기독교 청소년들의 영적 안녕감 전체는 실존적 안녕감($r=.781$), 종교적 안녕감($r=.750$), 심리적 안녕감($r=.652$), 자기통제력($r=.513$)순으로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영적,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통제력을 약화시키지만, 종교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자기통제력은 정적 상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을 위한 지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영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자기통제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 안녕감 가운데 종교적 안녕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검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종교적 안녕감에 영향을 보였고($\beta=-.224, p<.001$), 설명력은 8.6%로 나타났다($F=13.123, p<.001$).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종교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Hunsberger 등(1996)의 연구에서 사이버 중독이 종교적 영적 안녕감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넷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 안녕감 가운데 실존적 안녕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을 보였고($\beta = -.172, p < .001$), 설명력은 9.1%로 나타났다($F = 15.621, p < .001$). 이는 박명준과 신성만(2014)의 연구에서 실존적 영적 안녕감이($\beta = -.33, p < .001$) 사이버 중독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다섯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칠 영향을 검증한 결과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실존적 안녕감에 영향력을 보였고($\beta = -.242, p < .001$), 설명력은 9.1%로 나타났다. 이는 김미정과 정규석(2014)의 사이버불링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beta = -.244, p < .001$)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여섯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종교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beta = -.141$)과 자기통제력($\beta = .531$)이 종교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F = 59.124, p < .001$). 그리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는 $Z = -1.896, p < .001$ 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실존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beta = -.106$)과 자기통제력($\beta = .631$)이 실존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F = 91.492, p < .001$). 그리고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Z = -1.942, p < .001$ 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beta = -.150$)과 자기통제력($\beta = .623$)이 심리적 안녕감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과 자기통제력을 포함한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F = 75.012, p < .001$).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한 결과 $Z = -1.935, p < .001$ 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영적·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 매개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연구문제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2. 결론 및 제언

한국은 세계 유례없는 압축성장과 I.T 강국이 되면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 보급률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생겨진 부작용 중 하나가 한국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불링 피해경험률이 16.8%(NIA, 2017)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자 청소년 50.0%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심리를 느끼고, 23.5%는 자살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본 연구결과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5점 척도가 $M = 3.82(SD \pm 3.21)$ 로 나타난 것은 사이버불링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일반화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일반청소년들과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영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데(엡4:15-16)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며,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교육 현장에서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에 따른 문제이해와 예방교육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변인인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종속변인인 영적 안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과 매개변인인 자기통제력에 부정(-)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매개변인인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자기통제력 향상과 영적 안녕감과 및 심리적 안녕감 향상은 사이버불링 피해와 가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넷째, 사이버불링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악순환 고리(Wolak, Mitchell, & Finkelhor, 2007; Ybarra & Mitchell, 2007)가 되기에 교회와 가정에서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 이어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 바람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실시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기독교 청소년과 비기독교 청소년들을 비교하는 연구를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변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행한다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일부 지방의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연구결과를 탐색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후속연구에서 실험연구와 질적연구를

실행함으로 좀 더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향력과 매개변수를 검증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피해자 회복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개발될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

- 고경숙 (2013). 청소년의 전인건강 향상을 위한 영성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경성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고기숙, 이면재, 김영은 (2012).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 경험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지**, 13(4), 501-516.
- 권양순, 송정아 (2010). 영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0, 53-80.
- 김경애 (2013).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과 사회적지지 지각의 매개효과. **총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윤혜미 (2012).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 폭력 용인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련성. **한국아동복지학**, 39, 213-244.
- 김교정, 서상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 변인의 경로 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35-57.
- 김미정, 정규석 (2014). 사이버 공간의 결속적 사회자본과 사이버불링이 청소년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교우 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4), 347-371.
- 김선희 (2002). 자기통제력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 (2009).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2).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용 (2014).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보호요인의 영향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10).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기본심리적 욕구 척도 개발을 통한 청소년 안녕감 설명변인 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형화 (2013). 비혼독신의 자기분화와 가족분화가 영적 안녕감과 결혼태도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원 (2016).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 (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사이버폭력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상담학회**, 13(4), 1581-1607.
- 박대식, 손은정 (2016). 사이버 괴롭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익명성, 공격성,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태도. **상담학연구**, 17(4), 313-331.
- 박명준, 신성만 (2014).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인터넷 게임, 사이버섹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2), 753-771.
- 박미하 (2014). 감사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2(2), 184-212.
- 박지아, 유성경 (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심리치료**, 15(4), 765-778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 조사. 한국정보화 진흥원.
- 백윤미, 유미숙 (2006). 부모-자녀 축진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또래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9 (3), 85-98.
-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77-1095.
- 송지연 (2016). 전통적, 사이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방어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건호 (2008). 중· 고등학생의 영적 안녕감이 교사와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지**, 26, 237-250.
- 신나민, 안화실 (2013). 청소년 사이버 폭력 현황 및 피해·가해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 1-21.
- 신소라 (2015). 청소년의 긴장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복자, 강경아 (2001). 영성체험. **대한간호학회지**, 31(6), 967-977.
- 오세연, 곽영길 (2013). 사이버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지**, 10(3), 65-88.
- 오은정 (2010). 청소년과 민족정신: 학생의 사이버불링 실태 조사. **청소년과 효**

문화, 15, 219-243.

- 유만상 (2012). 독서를 활용한 청년기 여성 형성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선미 (2017). 청소년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과 전망. *아동가족 치료 연구 15*, 명지대학교 아동가족심리치료센터.
- 이자영, 최응용 (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 이지안 (2009). 자원봉사활동과 영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2011). 영적 안녕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호, 신나민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진현, 이성식 (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차이. *한국피해자학회지*, 19(1), 207-227.
- 정혜원, 정동우 (2012).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1-23.
- 조윤오 (2015). 외국의 청소년 사이버불링 응방안 개입 프로그램 고찰. *경찰학논총*, 10(3), 335-371.
- 하창순, 김지현, 최희철, 유현실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학교수업 참여도, 개인 학습 시간과 학업성적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43, 181-200.
- 한희정, 전해진 (2014). 국내 사이버불링 연구 동향.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4, 180-217.
- 황혜원 (2011).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1-26.
- Agatston, P., Kowealski, R., & Limber, S. (2012). Youth views on cyberbullying. In J. W. Patchin, & Hinduja(Eds.), *Cyberbullying prevention and response : Expert perspective*. NY: Routledge.
- Barlett, C, P. (2015). Anonymously hurting others online: The effect of anonymity on cyberbullying frequency.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4(2), 70-79.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ran, T., & Li, Q.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 bullying and school bullying. *Journal of Student Wellbeing*, 1(2), 15-33.
- Burkhardt, M. A. (1989). Spirituality an Analysis of the Concept, *Holistic Nursing. Practice*, 3 (3), 69-77.
- Chapman, L. S. (1986). Spiritual Health: a Component Missing from Health Promo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1(1), 38-41.
- Conn, K. (2014). Cyberbullying: A Legal Review, Retrieved January 20, from <http://www.ascd.org/publications/educational-leadership/mar09/vol16>, 2009.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ndinger, P., Stohemeier, D., & Spiel, C. (2012). Motives for bullying others in cyberspace: A study on bullies and bully-victims in Austria. In Qing, L., Donna, C., & Peter, K. S.(Eds.), *Cyberbullying in the global playground: Research from International Perspectives*, 263-284.
- Hinduja, S., & Patchin, J. W. (2009). Off-line consequence of online victimization: School violence and delinquency. *Journal of School Violence*, 6 (3), 89-112.
- Hinduja, S., & Patchin, J. W. (2010). Cyberbullying Identification, Prevention and Response. Retrieved June 12, 2013, http://www.cyberbullying.us/cyberbullying_Identification_Prevention_Response_Fact_Sheet.pdf
- Holfeld, B. (2014). Perceptions and attributions of bystanders to cyber bully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8, 1-7.
- Hunsberger, B., Alisat, S., Pancer, S. M., & Pratt, M. (1996). Religious fundamentalism and religious doubts: Content, consciousness and complexity of thi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Psychology of Religion*, 6(3), 201-220.
- Johoda, M. (1959). *Current Concept of Positive Mental Health*, NY: Basic Books.

- Juvonen, J., & Gross, E. (2008), Extending the school grounds? Bullying experiences in cyber space, *Journal of School Health*, 78(9), 496–505.
- Kanfer, F. H. (1977). The many faces of self-control, or behavior modification changes its focus. In R. B. Stuart (Ed.), *Behavioral self-management* (pp.1–48). NY: Brunner/Mazel.
- Karoly P. A. (1999). A goal systems-self-regulatory perspective on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3(4), 264–291.
- Kopp, C. B. (1979). Perspectives on infant motor system development. In M. Bornstein & W. Kessen (Eds.), *Psychological development from infancy*. Hillsdale, NJ: Erlbaum.
- Kowalski R. M. Morgan, C. A., & Limber, S. E. (2012). Traditional bullying as a potential warning sign of cyberbullying,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33(5), 505–519
- Masse, R., Poulin, C., Dassa, C., Lambert, J., Belair, S., & Battaglini, A. (1998). The structure of mental health: Higher-order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5(1), 475–504.
- McDowell, I., & Newel, C. (1990).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University Press.
- Mian, C. (2014). *Cyberbullying and surveillance new legislation loses sight of the problem*. CCPA Monitor, September.
- Moberg, D. O. (1974). Spiritual Well-being in Late Life. In J. F. Gubrium (ED.) *Late Life: Communities and Environment polic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Paloutzian, R. F., & Ellison, C. W.(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D. Perma(Eds). *Loneliness : a sourcebook of research and therapy*(pp.244–236). NY: John Wiley & Son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d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oeken, K. L., & Carson, V. B. (1987). Responding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 chronically ill.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2(3), 603–611.
- Voughan, F. (1986). *The Inward Are: Healing and Wholeness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 Wang, J., Nansel, T. R., & Iannotti, R. J. (2011). Cyber and traditional bullying: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depress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8(4), 415–417.
- Willard, N. E. (2017). *Cyberbullying and cyberthreats: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online social aggression, threats and distress*, Champaign, IL: Research Press, Parris, Varjas, Meyers & Cutts.
- Wolak, J. Mitchell, K., & Finkelhor, D. (2007). Does Online Harassment Constitute Bullying? An Exploration of Online Harassment by Known Peers and Online-Only Conta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1(6), 51–58.
- Ybarra, M. L., & Mitchell, K. J. (2007). Prevalence and Frequency of Internet Harassment Instigation: Implications for Adolescent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2), 189–195.

【 Abstract 】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ristian Adolescent
-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Oh, Yoon Sun

Korean Bibl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the spiritual well-being of religious well-being and existenti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ristian adolescent,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20 Christian adolescent students by a questionnaire survey.

The statistic analysis of this study employed SPSS WIN 21.0, and the main methods of statistics were frequency analysis, t-test, F-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revealed that Christian adolescents cyberbullying victimization, spiritual well-being, religious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p < .01$). Secondly, it was found tha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religious well-being($\beta = -.224, p < .001$). Third, it was found tha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existential well-being($\beta = -.172, p < .001$). Forth, it was found that cyberbullying victimization had direct positive effe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beta = -.242, p < .001$). Lastly, it was identified that self-control of Christian adolescent played a mediating role in relations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piritual well-being(religious, existential), and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F = 75.012, p < .001$).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yberbullying victimization, religious well-being, existenti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self-control